■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2.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掌)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1-6).**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70장
대표기도 / (1부) 박영미 집사　　(2부) 윤성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열왕기하 6:8~17**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라."** / 전종남 목사
( See the Unseen Army. )
찬　　송 / 384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52장, 455장　　기　　도 / 김상금 권사
성경봉독 / **레위기 19:26~37**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거룩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 전종남 목사
( Holiness Is Proven by the Way We Live. )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04장, 449장
성경봉독 / **디도서 3:9~15**
말　　씀 / **"피할 것은 피하고, 힘쓸 것은 힘쓰라."**
( Avoid the Unprofitable and Pursue Good Work ) / 전종남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에스겔 강해 / 전종남 목사

■ 저녁 8시 40분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 주일 1부 | 주일 2부 | 주일 오후 |
|---|---|---|
| 이기숙 집사 | 윤결태 장로 | 김연주 권사 |

**예배 위원**

| 8월 | 1부 | 2부 |
|---|---|---|
| 안내 | 김춘자 |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
| 헌금 | 문미경 | 최영종 이영희 전복희 유경순 |

**헌금자 명단** (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

| | |
|---|---|
| 십 일 조 | 김복례 김영화 김은립 김춘예 노상현(이정숙) 오진솔 윤성태(강현주) 윤주연 임진수(정해순) 채형국(박광연) 최진오(김숙자) 홍우표 |
| 감사헌금 | 전종남(최경애) 김복례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노상현(이정숙) 문상필 박삼강자가정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이대기(박선진)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채형국(박광연) 최진오(김숙자) 한희숙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월삭감사:** 연윤희 |
| 선교헌금 | 김복례 박삼강자가정 이대기(박선진) 2여 |
| 구제헌금 |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이양매 ***부서헌금:** 유초-중고 |
| 교육헌금 | 김복례 박광연 박주해 이대기(박선진) 임진수(정해순) |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 8. 2. )

# 로뎀 나무 아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왕상19:1~8)

전 종 남 목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바로 다음 날,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도망을 갑니다. 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걸어간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랜 사역과 영적 싸움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탈진(Burnout)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지쳐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1.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3-4절).

하나님은 탈진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 2.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5-8절).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신 후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엘리야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억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삶의 무게에 지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